

“시나리오에 녹아들면 감정도 디테일도 살아나죠”

★스타인터뷰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이병헌

어떤 역할이든 자신만의 색깔로 맛깔나게 소화하는 배우 이병헌(47). 앞서 ‘내부자들’ ‘마스터’ ‘남한산성’ 등 규모감 있는 영화에서 선 굵은 연기를 선보여온 그가 휴먼코미드 드라마 ‘그것만이 내 세상’으로 관객을 찾는다. 지금은 한물간 전직 프로 복서 ‘조하’ 역을 맡아 코믹하면서도 인간미 넘치는 매력을 발산한다.

최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이병헌은 그 어떤 영화인터뷰 때보다도 밝은 모습이였다. 그동안 무겁고 센 캐릭터 위주로 연기하다가 현실적이면서도 친근한 캐릭터를, 그것도 규모가 꽤 의외라는 말에 이병헌은 “일부러 캐릭터 변신을 위해 작품을 선택한 건 아니다. 오랜만에 재미있는 내용의 시나리오를 만나서 기분이 좋았고, 선뜻 출연하기로 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나 보여줬던 연기를 영화 속에서 하게 됐다. 누군가는 ‘이병헌이 휴먼코미드물?’ 하면서 의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순전히 시나리오를 보고 결정했다”고 출연 동기를 밝혔다.

‘그것만이 내 세상’은 전직 복서 ‘조하’가 서브트증후군 동생 ‘진태’(박정민), 살아온 곳도, 잘하는 일도, 좋아하는 것도 다른 두 형제가 난생처음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영화는 ‘조하’가 17년간 연락도 없이 떨어져 지내던 엄마 ‘인숙’(윤여정)과 재회하게 되면서 시작된다.

“개인적으로 영화를 너무 기분 좋게 봐서 그런지 느낌이 좋아요. 흥행 여부에 대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일단 새해를 시작하는 영화로 손색없다고 자부해요. 크게 신경쓰지 않고 무심코 지나쳤던 사소한 것들이 알고보면 가장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이기도 하고요.(웃음)”



‘그것만이 내 세상’ 스틸컷. / CJ엔터테인먼트

알고보면 속정깊은 전직 복서 조하 역 현장에서 맡은 각자의 ‘역할’ 중요해 박정민과 의외의 ‘형제케미’ 볼거리

‘조하’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단순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알고 보면 속정깊은 인물이다. 난생 처음 본 동생이 불편하고 귀찮다고 툴툴대지만, 안 보는 척하면서도 신경 써주며 결정적인 순간 진태의 편이 되어준다. 이병헌은 간결하게 톡톡 말을 내뱉는 ‘조하’의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고 입을 열었다.

“극 안에서 배우는 각자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돋보이고 싶으니가 욕심내

야지’ 또는 ‘이번 영화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양보해야지’ 하다보면 조화는 이뤄지지 않아요. 어떤 영화를 하든 저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박정민 씨는 기대 이상으로 ‘진태’를 잘했었어요. 서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화가 참 좋았던 건 몰락한 복서의 성공기가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뻔하지 않은 영화라는 게 좋았어요.”

이병헌은 촬영 현장에서도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연기 외적인 것에는 절대 참견하지 않는다”며 “(감독, 스텝을 비롯한) 상대가 느끼기에 월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배들에게도 이렇게 저렇게 해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친구들에게도 프라이드가 있을거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어쨌든 ‘그것만이 내 세상’의 중심축은 ‘조하’다. 엄마와 동생을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이 ‘조하’의 시선에서 그려진다. 다양한 감정선을 소화했다는 건 캐릭터에 대한 깊은 연구가 있었다는 것일터.

“많은 분이 캐릭터의 디테일함을 어떻게 잡아나갔는지 물어보시는데, 디테일에 신경쓰다보면 중심에서 벗어날 때가 많아요. 이야기에 젖어드는 순간, 디테일도 함께 생긴다고 생각해요. 줄기에서 결가지가 뻗어나가지, 가지에서 줄기가 생겨나지는 않잖아요.(웃음) 시나리오 전체에 녹아드는 게 최우선인 거죠. 그러면 감정도, 디테일한 연기도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감독님들은 ‘그 캐릭터는 병헌 씨가 더 잘알테니 병헌 씨가 상황에 맞는 대사를 해보라’라고

요구하시기도 해요.”

영화의 최대 볼거리는 이병헌과 박정민의 의외의 형제 케미다. 서로에게 가까워지면서 불편함이 익숙함으로, 어색함이 친숙함으로, 거부감이 형제애로 변해가는 과정은 따뜻한 감동과 운기로 가슴을 채운다.

이병헌은 “영화 현장에서의 분위기가 스크린에서도 전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며 촬영하면서도 ‘우리가 자유롭고 신나지 않으면 분명 극장 안에서도 관객들이 봐도 신나지 않겠지. 우리가 신나게 한 판 놀아야 관객들도 같은 리듬으로 놀 수 있을 거다’라고 되뇌었음을 밝혔다.

2018년도 이병헌은 바쁘다.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홍보가 끝나면, 드라마 ‘미스터선샤인’에 올인해 촬영할 예정이다.

“드라마까지 촬영이 전부 끝나면 육체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좀 쉬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꼭 그때 들어가야만 하는 좋은 작품이 있다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확실할 수 없죠.(웃음)”

이병헌이 인정한 시나리오, 이병헌의 코믹 연기가 일품인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은 17일 개봉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사진/BH엔터테인먼트



메트로신문이 직접 편집한 경제뉴스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메트로신문을 볼 수 있어요!



네이버 뉴스스탠드



크로스컨트리+스키점프 합쳐진 ‘스키의 왕’



지구력·순발력에 기술·담력까지 필요 북유럽국 강세 속 日·獨 경쟁력 부상

노르딕 복합(Nordic combined)은 두 종목이 합쳐진 스포츠다. 크로스컨트리에 필요한 지구력과 순발력, 여기에 스키 점프의 기술과 담력까지 갖춰야 해서 ‘스키의 왕’으로 불린다.

북유럽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노르딕 복합은 1892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첫 대회를 기점으로 정식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 했다.

동계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1924년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제1회 대회부터다. 노르딕(Nordic)은 평지 또는 완만한 언덕에서 치러지며, 대표 종목은 크로스컨트리가 있다. 크로스컨트리는 10km 안팎의 장거리를 스키를 타고 주행하는 종목이다. 엄청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해 ‘스키의 마라톤’이라 불린다.

노르딕 복합은 크로스컨트리에 스키 점프를 결합한 종목이다. 이러한 특성을 두고 미국 USA 투데이는 “일반인이 직접 하기 가장 어려운 동계올림픽 종목”이라며 “탈진하고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올림픽에서 여자 종목이 없는 유일한 경기이기도 하다. 총 3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는데 남자부 경기만 있다.

노르딕 복합은 개인전과 4명이 한 조를 이루는 단체전으로 나뉜다. 개인전과 단체전 모두 스키 점프를 먼저 한 뒤, 크로



노르딕 복합 경기 장면.

/AP 연합뉴스

스컨트리를 한다.

개인전은 스키 점프 도약대 길이에 따라 노멀힐(Normal hill)과 라지힐(Large hill) 경기로 나뉜다.

노멀힐은 85~109m 규격의 경기장용, 라지힐은 110m 이상 규격의 경기장이다. 단체전은 라지힐 점프대만 쓴다.

경기는 스키점프대에서 시작하며, 여기서 매긴 점수에 따라 크로스컨트리에 차등 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인전에서는 스키 점프에서 1점 차이가 날 때마다 4초씩(최대 10분) 늦게 출발한다.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은 총 10km다.

단체전은 스키 점프 1점당 1.33초씩 늦게 출발하며, 5km씩 총 20km의 거리를 연이어 달린다.

노르딕 복합은 그동안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중국과 노르웨이가 이 종목에서 총 13개의 금메달을 땀고, 핀란

드(4개)와 오스트리아(3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러나 일본도 1992년 프랑스 알베르빌,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대회에서 단체전 우승에 오르며 강국으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월드컵에서 우승 경쟁에 합류한 독일도 강세를 보이는 추세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제언(24)이 유일한 국가대표로 활동 중이다. 박제언은 지난해 2월 평창에서 열린 노르딕 복합 월드컵에서 개인전 30위에 올라 목표로 했던 올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확보했다.

이번 평창올림픽에서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는 독일의 에릭 프렌첼(30)이다. 그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속 월드컵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

오는 2월 14일에는 남자 노멀힐, 20일에는 라지힐 경기가 펼쳐진다. 또 22일에는 단체전이 열린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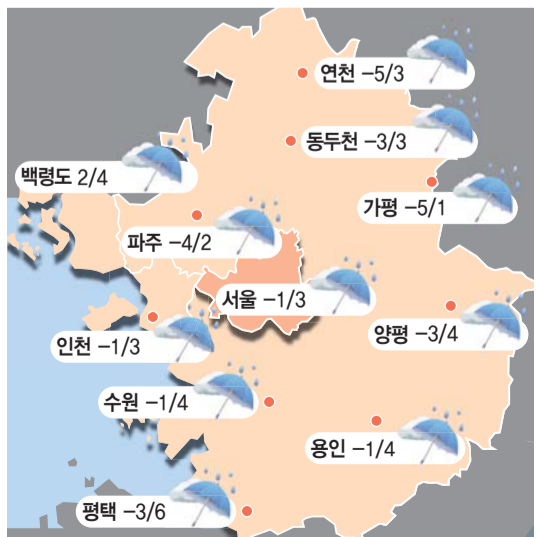
해돋이 / 07:46 | 해질 / 17:38

1월 16일
음력 : 11월 30일

수도권 날씨

-1 ~ 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